제7강 다원론적 자연철학들

(1교시)

多와 운동을 부정한 엘레아학파는 그리스 자연철학에 큰 분기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설사 파르메니데스의 논리가 설득력 있다 해도 다와 운동을 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었다. 때문에 이후의 자연철학은 파르메니데스의 논리와 현상세계의 多·운동을 화해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우선 실재를 다원화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실재는 자기동일적인 것이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깔고 나가면서도 거기에 多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때문에 엘레아학파 이후의 자연철학은 '다원론(多元論)'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엠페도클레스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라는 네 가지의 '원소들'을 제시했고, 아낙사고라스는 무한한 수의 '종자들'을 제시했고, 원자론자들은 역시 무한한 수의 '원자들'을 제시했다.

엠페도클레스(Empedokles, 495-435로 추정)는 시칠리아 섬의 아크라가스에서 출생했다. 순수 철학자로서만이 아니라 정치가, 웅변가, 의학자, 그리고 일종의 교주이기도 했다. 자연철학서인 『자연에 관하여』와 영혼의 정화를 논한 『카타르모이』를 썼다는 점에서 퓌타고라스를 연상시킨다. (서사시 형식)

엠페도클레스는 파르메니데스를 받아들이면서도 실재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만물의 '뿌리(rhizomata)'로 지수화풍 네 가지를 들었고 이것들을 '원소들(stoicheia=elemanta)'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四元素)는 사실상 태양, 대지, 천공(天空), 바다를 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물론 열냉건습(熱冷乾濕)에 상응한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가 파르메니데스적 자기동일자라고 함으로써 엘레아적 가정을 보존하고자 했으며, 그러나 네 가지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 현상세계의 多와 운동이 성립한다고 봄으로써 경험을 구제하고자 했다.

(2교시)

사원소가 결합하기도 하고 분리하기도 하는 것은 그 바깥에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두 힘은 바로 '사랑(philia)'과 '미움(neikos)'이다. 무기물이 사원소와 결합함으로써 생명이 성립한다. 그 극한은 '구(sphairos)'이고 다른 한 극한은 사원소의 완전 분리이다.
인생이란 이런 우주적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우주론 외에 별도의 논의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오르페우스교의 교리와 거의 같다.
엠페도클레스는 현세계(現世界)는 분리/싸움의 경향이 강한 시대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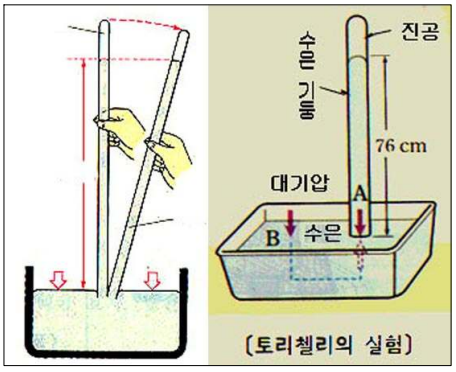
www.artnstudy.com

엠페도클레스의 사상은 훗날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엠페도클레스의 죽음」을 쓴 횔덜린이 그 중 한 사람이다. 가스통 바슐라르는 사원소설(說)을 새로운 형태로 부활시켰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원소들의 실재에 자리를 넘겨주고 현상의 위치로 전락한 사원소들은 그러나 바슐라르에 의해 현상학적 의미를 갖게 된다.

바슐라르 (1884~1962)
시론, 이미지론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과학 철학자.
주요 저서로 『촛불의 미학』, 『공간의 시학』, 『부정의 철학』 등

(3교시)

레우키포스(Leukippos)와 데모크리토스(Demokritos, 420년경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는 '원자(原子)들(atomata=atomi)'을 제시한다. 각각의 원자는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와 같다. 그러나 원자들은 多와 운동을 허용한다.



원자들은 극히 간단한 존재들로 이해된다. 오로지 크기, 모양, 위치만이 그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원자들의 운동으로부터 만물이 결과한다.(이 때 운동의 터로서 '공허=void'가 인정된다) 따라서 질의 세계는 피상적인 세계이며, 세계의 근본은 전적으로 수학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가 양과 질의 결합을, 아낙사고라스가 주로 질적 비율을 사용했다면, 데모크리토스는 순수하게 양적 측면만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근대 기

www.artnstudy.com

계론적 사유에서 환영받았다.

(4교시)

아낙사고라스(Anaxagoras, 500-428)는 이오니아 지방의 클라조메나이에서 태어났으며, (아마도 페르시아 전쟁이 계기가 되어) 아테네에서 주로 활동했다. 엠페도클레스와는 달리 철두철미 합리적인 밀레토스적 학풍을 이어받았다. 그는 운석을 보고서 천체를 뜨거운 돌덩어리로 해석했으며, 기이하게 생긴 염소의 머리를 절개해 아무 이상할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스 전성기에 페리클레스와 친우를 맺으면서 아테네 황금기의 한 문화적 축을 이루었으나, 페리클레스의 정적들에 몰려 람푸사코스에 은퇴해 말년을 보냈다. 왜 고향을 위하지 않느냐는 동향 사람들의 비난에 내 고향은 "저기"라고 말하면서 밤하늘을 가리켰다고 한다. 아낙사고라스의 글은 엠페도클레스와 대조적으로 간결한 산문으로 되어 있다.

아낙사고라스도 파르메니데스의 길을 따라 자기동일적 실체를 상정한다. 그러나 이 실체는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소와는 달리 무한한 '종자(種子)들(apermata=semenes)'이다. 아낙사고라스의 틀을 따라 무한한 것으로부터의 분화가 강조되었지만, 이 때 '무한한 것(apeiron)의 의미는 바뀐다. 생성과 소멸은 없으며 혼합과 분리가 있을 뿐이다.
각 사물에는 존재하는 모든 종자들이 공존해 있다. 아낙사고라스의 이 논리는 기존의 논리들과는 전혀 반대인 혁명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각 존재는 그것보다 빈약한 존재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것보다 절대적으로 풍부한 존재들의 결과가 된다. 각 존재가 비율적으로 많이 함축하는 종자가 곧 그 존재의 현실적 존재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사물을 분할해 가면 언젠가는 순수한 종자를 발견하게 될까? 아낙사고라스는, 제논의 받아들여, 사물은 무한히 분할되며 그 어떤 미립자도 '모든 사물의 종자들'을 함축한다고 본다. 때문에 종자는 순수한 상태로는 결코 추출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론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자는 수에 있어 무한하고, 질에 있어 무한하고, 크기에 있어 무한히 작다. 사물들 사이의 변환은 각 사물들이 내장하고 있는 무한의 종자들 사이의 비율 변화로 설명된다. (엠페도클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 화학 및 생물학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음미해 볼 수 있다.

엠페도클레스와 마찬가지로 아낙사고라스도 외부 원인을 제시한다. '지성(nous)'이 그것이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가 이것을 높이 평가했지만, 아낙사고라스는 실제 이 개념을 충분히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누스 개념은 자연철학에서의 또 하나의 분기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ww.artnstudy.com